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의 현황과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 초연 작품을 중심으로*

전정임
(충남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2. 한국오페라 초연 양상
 - 1) 2000년 이전
 - 2) 2000년 이후
3.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 활성화의 원인
 - 1) 오페라 축제를 통한 한국오페라 보급
 - 2) 오페라 창작 지원 사업의 정착
 - 3) 지자체 및 지방오페라단의 관심 증대
 - 4) 오페라 전문 대본가와 작곡가의 등장
4. 맺으며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NRF-2018S1 A5B8069753).

개 요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가 새롭게 창작·공연된 횟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최초의 한국오페라인 현제명의 《춘향전》이 초연된 1950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 총 44편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2000년대(2000년~2009년) 55편, 2010년대(2010년~2019년) 91편 등 총 146편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된다.

본 논문은 2000년도 이후 한국오페라계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오페라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오페라의 발전 내지는 글로벌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한국오페라 초연 양상을 비교해 보면, 첫째, 작곡가 측면에서 2000년 이전에는 오페라 작곡가가 기성 작곡가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숫자 면에서도 미미했었던 것이, 2000년 이후에는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폭넓은 양상을 보여주며 수적으로도 방대한 층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공연 장소 측면에서 2000년 이전에는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주최 오페라단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공공기관인 국립오페라단이 한국오페라 공연을 주도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사립오페라단이 공연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 대본의 출처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타 장르 중에서 연극 희곡을 오페라 대본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재 면에서도 고전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문학을 대본화하는 경우가 많고, 소재 면에서도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 이슈나 일상을 다룬 작품들의 비중도 높아지는 등 소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의 활성화의 원인으로는 오페라 축제들의 한국 오페라 공연 편입, 오페라 창작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지자체 및 지방오페라단의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 확대, 오페라 전문 인력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주제어: 한국오페라, 한국오페라 작곡가, 한국오페라 대본가,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 세종 카메라타

1. 들어가며

한국오페라¹⁾의 역사는 1950년 현재명의 《춘향전》을 시작으로 2020년인 올해가 꼭 70년이 된다. 70년을 맞은 한국오페라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 왔다. 한국오페라 작품이 1년에 한 개 남짓 공연되던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작품 정도가 새롭게 창작되어 공연되고 있으며, 이미 작곡된 한국오페라작품이 재공연되는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페라 공연을 주최하는 단체의 측면에서 한국오페라를 공연하는 것이 흥행 면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은 점차 바뀌고 있으며, 관객들의 측면에서 한국오페라 공연에 대한 참여 및 호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오페라의 초연 작품수²⁾를 검토해보면, 1950년대(1950년~1959년) 4개, 1960년대(1960년~1969년) 3개, 1970년대(1970년~1979년)에 5개로 숫자가 미미하다. 그러다가 1980년대(1980년~1989년)로 가면 한국오페라 공연 횟수가 14개로 거의 3배 정도 급증하는데 이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 큰 계기가 된다.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행사로 한국오페라를 공연하여 1986년과 1988년에만 각각 5개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된다.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1990년대(1990년~1999년)에는 총 18개의 한국오페라

-
- 1) 본 논문에서는 ‘한국오페라’(Korean opera)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창작된 오페라’ 혹은 ‘한국에서 창작된 오페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한국창작오페라’(Korean creative opera)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예술 작품은 ‘창작’이므로 굳이 ‘한국오페라’에 ‘창작’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독일오페라’, ‘이탈리아오페라’라는 말은 있어도 ‘독일창작오페라’, ‘이탈리아창작오페라’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한국창작오페라’가 아니라 ‘한국오페라’라고 지칭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오페라사’, ‘한국오페라계’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개최된 서양오페라 공연까지를 포함해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혼돈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용어의 정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창작오페라’ 대신 ‘한국오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된 한국오페라는 ‘한국어로 창작된’ 오페라이다. 외국 작곡가가 한국어로 작곡한 오페라 작품은 논의에 포함하였고, 한국 작곡가가 외국어로 작곡한 오페라 작품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가 초연된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2000년~2009년)에 55개, 2010년대(2010년~2019년)에는 91개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된다.

본 논문은 한국오페라가 공연의 흥행 면에서 서양오페라보다 여전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이후 한국오페라계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오페라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오페라의 발전 내지는 글로벌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국오페라 양적 증가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요인, 경제 발전 요인, 사회 변화 요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후속 연구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음악계의 요인만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2. 한국오페라 초연 양상

1) 2000년 이전³⁾

최초로 한국 작곡가에 의해 한국어로 된 오페라가 창작·공연된 것은 1950년으로 현제명(玄濟明, 1902~1960)의 《춘향전》이 그 효시이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음악가들에 의해 제작된 최초의 오페라 공연은 이인선(李寅善, 1907~1960)이 주도했던 국제오페라사가 1948년 1월에 개최했던 베르디(G. Verdi, 1813~1901)의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공연이다.⁴⁾ 최초의 오페

3) 2000년 이전 한국오페라 초연 양상 부분은 전정임, “한국창작오페라사 시기 구분을 위한 소고,” 『예술문화연구』 18 (2011), 24-30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4) ‘국제오페라사’가 오페라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사(社)자를 쓴 것은 당시 대중음악계통의 단체들이 모두 ‘단’자를 썼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국오페라 50주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편, 『한국 오페라 50년사 1948~1998』 (서울: 세종출판사, 1998), 23.

라 공연 이후 단 2년 만에 첫 번째 한국오페라가 공연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현제명의 《춘향전》은 1950년 5월 17일~26일 시공관에서 현제명 자신의 지휘, 유치진 연출로 초연되었다. 이후 이 작품은 6·25전쟁 중인 1951년 7월 피난지인 대구와 부산에서 재공연 되었고,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연주된 한국오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51년에는 김대현의 《콩쥐팍쥐》가 작곡되어 그해 10월 피난지 부산에서 김대현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에는 현제명의 두 번째 오페라 《왕자호동》이 서울의 시공관에서 초연되었다. 1950년대의 한국오페라계는 최초의 한국오페라가 공연되었고, 전쟁 중 피난지 대구와 부산에서까지 공연이 이루어질 정도로 음악인들의 열정이 뜨거웠고 관중들의 반응도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은 약간의 공백을 보이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962년에 발족한 국립오페라단은 같은 해 4월 창단공연으로 장일남의 《왕자호동》을 이남수 지휘, 오현명 연출로 초연하였다. 또한 1966년에는 장일남의 두 번째 오페라인 《춘향전》을 초연하여 한국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1969년에는 제1회 서울음악제의 일환으로 김달성의 《자명고》가 초연되었다. 김달성의 《자명고》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여서 결국 현제명, 장일남의 《왕자호동》과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한국오페라의 소재는 다소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새로운 오페라가 창작된다. 1968년에 발족한 김자경오페라단은 1970년 4월,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던 미국 작곡가 웨이드(J. Wade, 1930~1983)의 《순교자》를 위촉·초연하였다. 이 작품은 재미동포 김은국의 동명(同名) 영문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전물을 소재로 했던 이전의 작품들과는 차별된다. 1971년에는 역시 김자경오페라단 위촉으로 장일남의 《원효대사》가 공연되었으며,

이 공연 이후에도 김자경오페라단은 지속적으로 한국오페라의 위촉과 재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오페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1972년 4월에는 강상복이 이끄는 대한오페라단이 박재훈의 《에스터》를 초연했다. 1975년 11월에는 국립오페라단이 흥연택의 《논개》를 초연하였다. 1978년에는 김자경오페라단 위촉으로 김동진의 《심청전》이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작곡가 김동진이 판소리 창법과 서양음악기법을 접목시킨 ‘신창악’ 기법이 반영된 첫 작품이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 개최와 소극장 오페라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오페라 공연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1983년 9월에는 박재열의 《초분》(국립오페라단)이, 11월에는 동일 작곡가인 박재열의 《심청가》(김자경오페라단)가, 1985년 10월에는 공석준의 《결혼》(국립오페라단)이 초연되었다.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던 1986년도에는 총 5편의 한국 오페라가 초연되었다. 이해 6월에 박준상의 《춘향전》(서울시립오페라단)과 오숙자의 《원술랑》(서울오페라단)이, 10월에 백병동의 《이화부부》(국립오페라단)가 무대에 올려졌다. 또한 86아시안게임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10월에 개최된 서울음악제에서는 흥연택의 《시집가는 날》이 초연되었으며, 부산에서는 86아시안게임과 제7회 부산 시민의 날 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이상근의 《부산성의 사람들》이 초연되었다. 한편, 1987년도에는 이영조의 《처용》(국립오페라단)이 초연되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도도 총 5편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되었다. 9월에는 88서울올림픽 공식 문화예술축전의 일환으로 경축전야제 때 이탈리아 출신 미국작곡가 메노티(Gian Carlo Menotti, 1911~2007)의 《시집가는 날》(서울시립오페라단)이 초연⁵⁾되었다. 국립오페라단은 그해 10월에 서울올림픽 폐막식에 맞추어 장일남의 《불타는 탑》을, 12월에는 《춘향전》을 각색

5) 이 공연은 작곡가의 한국적 관습과 유머에 대한 연구의 미흡, 스코어 탈고의 지체로 인한 사전준비와 연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공연이 되지 못했다고 기록된다. 한국오페라 50주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편, 『한국 오페라 50년사』, 75.

한 흥연택의 《성춘향을 찾습니다》를 공연했다. 한편, 그해에 창단 20주년을 맞은 김자경오페라단은 6월에 이진용의 《솔로몬과 솔람미》를 초연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12월에 김국진의 《B사감과 러브레터》(부산오페라소극장)가 초연되었다.

1980년대 한국오페라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에 맞추어 한국오페라가 다수 제작되었다는 점 이외에, 소극장용 오페라가 다수 창작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작품들 중 박재열의 《초분》과 《심청가》, 공석준의 《결혼》, 박준상의 《춘향전》, 백벽동의 《이화부부》, 흥연택의 《성춘향을 찾습니다》, 김국진의 《B사감과 러브레터》 등이 모두 소극장 오페라이다. 이 중 박재열의 《초분》은 우리나라 소극장 오페라의 효시가 된 작품이다. 이러한 소극장 오페라로 인해 한국오페라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오페라 전문극장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의 개관과 더불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오페라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1993년에 예술의전당 내에 오페라 전문극장인 오페라하우스가 개관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오페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는 1986년 아시안게임 문화축전에서 초연되었던 흥연택의 《시집가는 날》이 국립오페라단 주최로 개작되어 재공연되었다.

1991년에는 국립오페라단 주최로 소극장 오페라인 박영근의 《보석과 여인》이 무대에 올려졌다. 1992년에는 이종구의 《환향녀》가, 1993년에는 장일남의 《견우직녀》가, 1994년에는 이연국의 《오파아 줄리아의 순교》가 공연됨으로써 매년 1편씩 한국오페라가 초연되었다. 이후 1995년에는 이종구의 《구드레》, 류진구의 《안중근》 등 2편이 공연되었고, 1997년에는 강석희의 《초월》, 최병철의 《아라리 공주》, 김동진의 《춘향전》 등 3편이, 1998년에는 이영조의 《황진이》와 성곡오페라단의 《이순신》 등 2편이 공연되었다. 1990년대의 마지막 해인 1999년에는 1년 동안 총 7편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되었는데, 김

경중의 《돌이서 한 발로》, 김선철의 《무등등등》, 백병동의 《사랑의 빛》, 이동훈의 《백범 김구와 상해임시정부》, 이종구의 《매직 텔레파시》, 장일남의 《녹두장군》, 정회갑의 《산불》이 초연되었다.

1990년대 한국오페라계의 특징으로는 그 이전의 한국오페라 공연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990년대에는 여전히 서울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 중 《견우직녀》는 대구시민회관에서, 《이순신》은 아산 현충사에서, 《무등등등》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녹두장군》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초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오페라단이 한국오페라에 대해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0년 이전 한국오페라계를 초연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1950년 현제명 《춘향전》을 시작으로 매우 간헐적으로 한국오페라가 만들어지고 공연되던 것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국립오페라단과 김자경오페라단의 창설로 인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오페라가 양적인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 개최와 소극장 오페라 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90년대에는 오페라 전문극장인 오페라하우스의 개관과 더불어 한국오페라가 양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주도에서 각 지역으로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0년 이전 한국오페라의 초연 작품 목록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0년 이전 한국오페라 초연 작품 목록⁶⁾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1	1950.05	현제명	《춘향전》	고전소설	시공관(시민회관)	서울대학교
2	1951.10	김대현	《콩쥐팍쥐》	설화	부산	대한오페라단
3	1954.11	현제명	《왕자호동》	역사	시공관(시민회관)	서울대학교
4	1959.10	안일승	《고구려의 딸》	기타	대전동화극장	대전사범학교
5	1962.04	장일남	《왕자호동》	역사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6	1966.10	장일남	《춘향전》	고전소설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7	1969.10	김달성	《자명고》	역사	시민회관	음악협회
8	1970.04	J. Wade	《순교자》	문학	시민회관	김자경오페라단
9	1971.04	장일남	《원효대사》	인물	시민회관	김자경오페라단
10	1972.04	박재훈	《에스티》	인물	시민회관	대한오페라단
11	1975.11	홍연택	《논개》	인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12	1978.04	김동진	《심청전》	고전소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김자경오페라단
13	1983.09	박재열	《초분》	연극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14	1983.11	박재열	《심청가》	고전소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김자경오페라단
15	1985.10	공석준	《결혼》	연극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16	1986.06	박준상	《춘향전》	고전소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서울시립오페라단
17	1986.06	오숙자	《월술량》	연극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서울오페라단
18	1986.10	홍연택	《시집가는 날》	연극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	1986.10	이상근	《부산성 사람들》	역사	부산시민회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산지부
20	1986.10	백병동	《이화부부》	연극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21	1987.11	이영조	《처용》	설화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22	1988.06	이건용	《솔로몬과 솔람미》	기타	호암아트홀	김자경오페라단

6) 본 목록은 문헌자료, 공연팸플릿,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초연 한국오페라 중 전막 공연만을 수록하였고, 쇼케이스나 콘서트 형식의 공연은 초연이라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23	1988.09	G. Menotti	《시집가는 날》	연극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서울시립오페라단
24	1988.10	장일남	《볼타는 탑》	설화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25	1988.12	홍연택	《성춘향을 찾습니다》	고전소설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26	1988.12	김국진	《B사감과 러브레터》	문학	부산문화회관	부산오페라소극장
27	1991.09	박영근	《보석과 여인》	연극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28	1992.01	이종구	《환향녀》	역사	호암아트홀	한국창작가극단
29	1993.09	장일남	《견우직녀》	설화	대구시민회관	서울아카데미심포니 오케스트라
30	1994.11	이연국	《오파아 줄리아의 순교》	인물	국립극장 소극장	서울오페라앙상블
31	1995.08	이종구	《구드레》	역사	국립극장 대극장	성곡오페라단
32	1995.05	류진구	《안중근》	인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고려오페라단
33	1997.10	강석희	《초월》	역사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삶과꿈이어즈
34	1997.11	최병철	《아라리공주》	역사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35	1997.11	김동진	《춘향전》	고전소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김자경오페라단
36	1998.04	이영조	《황진이》	인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한국오페라단
37	1998.09	N. Lucolano 외	《이순신》	인물	아산현충사 아외특설무대	성곡오페라단
38	1999.02	김경중	《돌아서 한 발로》 (사랑의변주곡)	기타	국립극장 소극장	서울오페라앙상블
39	1999.05	김선철	《무등등등》	문학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빛소리오페라단
40	1999.05	백병동	《사랑의 빛》	기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서울오페라앙상블
41	1999.07	이동훈	《백범김구와 상해임시정부》	인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베세토오페라단
42	1999.10	이종구	《매직텔레파시》	기타	호암아트홀	한국오페라단
43	1999.11	장일남	《녹두장군》	인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호남오페라단
44	1999.11	정희갑	《산불》	연극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2000년 이전 초연된 한국오페라를 작곡가별로 분석해보면, 장일남이 총 6개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종구와 홍연택이 각각 3개 작품을, 김동진, 박재열, 백병동, 이영조, 현재명이 각각 2개 작품을 초연하였다.

초연이 이루어진 장소별로는 총 44개 공연 중 36개(81.8%) 공연이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단 8개(18.2%) 공연만이 서울 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서울 소재 극장 중에서는 국립극장(15회)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시민회관(6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6회), 세종문화회관(6회), 호암아트홀(3회)의 순이다. 서울 외 지역으로는 부산에서 3회의 공연이 있었고, 광주,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아산에서 각각 1회씩 공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0년 이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공연을 주최한 오페라단별로는 국립오페라단이 12회로 무려 전체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의 27.2%를 주도하였다. 이는 국공립단체가 가진 공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는 김자경오페라단(6회), 서울오페라 앙상블(4회), 서울시립오페라단(2회), 대한오페라단(2회), 성곡오페라단(2회) 순이며 그 외의 오페라단은 1회씩 한국오페라를 초연했다. 학교와 극장 등이 주최한 것을 제외하고, 2000년 이전 한국오페라를 초연한 오페라단은 국립오페라단을 포함하여 총 14개 단체이다.

대본의 출처별로는 다른 장르의 작품을 오페라화한 것이 총 11개로 25.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희곡을 오페라 대본화한 것이 8개이고, 소설이나 시 등 문학 작품을 오페라 대본화한 것이 3개이다. 한편, 오페라 대본으로 직접 창작한 것은 총 33개로 75.0%의 비율을 차지한다. 소재별로는 고전 소설이나 설화,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이 11개로 가장 많고, 인물을 소재로 한 것이 9개,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 8개, 기타⁷⁾ 5개의 순이다.

7) 고전물, 인물, 역사물을 소재로 하지 않고 현실적 이슈나 소소한 일상, 종교적 내용을 소재로 다른 작품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2] 2000년 이전 초연 한국오페라 대본 출처표

분류	장르	작품수	소계	비율	소계
타 장르 작품 오페라 대본화	연극	8	11	18.2%	25.0%
	문학	3		6.8%	
직접 오페라로 창작	고전물	11	33	25.0%	75.0%
	인물	9		20.5%	
	역사	8		18.2%	
	기타	5		11.3%	
계		44	44	100%	100%

2)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 초연 작품 수는 146개로 전체 초연 작품 수(189개)의 약 77%에 이른다. 1950년부터 1999년까지 50년 기간에 43개의 한국 오페라가 초연된 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146개의 한국 오페라가 새롭게 만들어져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2000년 이후에는 한국오페라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국 각지의 문화 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 심지어 해당 오페라와 관련된 사적지 등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진다.

한국오페라의 작곡가층이 매우 두터워진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2000년도 이전에는 오페라 작곡가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오페라라는 장르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작곡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규모의 한국오페라들이 작곡되고, 젊은 작곡가들도 과감하게 오페라 장르에 문을 두드리는 양상이 보인다. 그에 덧붙여 아예 오페라 장르로만 특화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곡가들도 생겨났다.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의 초연 작품 목록을 연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 초연 작품 목록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45	2000.03	박재훈	《유관순》	인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고려오페라단
46	2000.09	이승선	《무영탑》	전설	경주 불국사 야외무대	경북오페라단
47	2000.11.	임금수	《탁류》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사)고려오페라단
48	2001.01	이건용	《봄봄》	인물	일본 신국립극장 중극장	국립오페라단
49	2001.09	황철익	《허난설현의 불꽃아리랑》	인물	한전 아츠폴센터	서울그랜드오페라단
50	2001.09	이병욱	《술피》	인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충청오페라단
51	2002.02	강준일	《백범김구》	인물	국립극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52	2002.03	나인용	《부자유친》	인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공연기획 씨뮤
53	2002.05	이철우	《동녘》	문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호남오페라단
54	2002.06	이호준	《산돌 손양원》 (사랑의원자탄)	인물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	로얄오페라단
55	2002.08	백병동	《눈물 많은 초인》	인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뉴서울오페라단
56	2002.09	박영근	《고구려의 불꽃 동명성왕》	인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57	2002.11	강석희	《보리스를 위한 파티》	문학	LG아트센터	삶과꿈싱어즈
58	2002.12	김경길	《백록담》	전설	제주문화회관 대극장	제주시
59	2002.12	이종구	《사랑을 위한 협주곡》	역사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한국오페라단
60	2003.04	이찬해	《잃어버린 생명의무를 찾아서》	기타	호암아트홀	한국여성작곡가회
61	2003.08	이영조	《목화》	인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62	2003.09	진영민	《신종, 그 천년의 울음》	역사	경주 천마총 야외특설무대	글로리아 오페라단
63	2003.09	김현옥	《메밀꽃 필 무렵》	문학	평창문화예술회관	백령오페라단
64	2003.09	이철우	《춘향》	고전소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호남오페라단
65	2003.12	이승선	《태형》	문학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디 오페라단
66	2004.09	이철우	《쌍백합 요한 루갈다》	인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호남오페라단
67	2004.10	임금수	《행주치마 전사들》	역사	고양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고양오페라단
68	2004.11	이건용	《동승》	영화	노원문화예술회관	세종오페라단
69	2004.12	이인식	《수로부인의 바다》	설화	대구서구문화회관	디 오페라단
70	2005.01	김경중	《정조대왕의 꿈》	인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성오페라단
71	2005.03	나인용	《아, 고구려 고구려》	인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뉴서울오페라단
72	2005.06	신동민	《배비장》	고전소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오페라단
73	2005.07	오숙자	《동방의 가인 황진이》	인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감머21오페라단
74	2005.09	임금수	《권율》	인물	고양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고양오페라단
75	2005.09	지성호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호남오페라단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76	2005.09	이영지	《한국에서 온 편지》	인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빛소리오페라단
77	2005.10	최전희	《논개》	인물	창원성산아트홀 대공연장	경남오페라단
78	2005.11	이영조	《손탁호텔》	연극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삶과꿈싱어즈
79	2005.12	허결재	《내사랑 우리의 땅》 (만인보1)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오페라단
80	2005.12	허수현	《김치》	기타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광주오페라단
81	2005.12	이종구	《한울춤》	역사	고양 어울림누리	한국오페라단
82	2005.12	곽진향	《장어선생의 외출》	기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디 오페라단
83	2006.02	이철웅	《아씨의 프란치스코》	인물	대구문화예술회관	푸른평화오페라단
84	2006.03	임준희	《천생연분》	연극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85	2006.08	진영민	《불의 혼》	역사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86	2006.09	지성호	《논개》	인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호남오페라단
87	2006.09	이승선	《길》	문학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디 오페라단
88	2006.10	허결재	《귀향(만인보2)》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오페라단
89	2007.06	강석희	《지구에서 금성천으로》	인물	LG아트센터	삶과꿈싱어즈
90	2007.09	김대성	《심청》	고전소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호남오페라단
91	2007.12	허결재	《들불(만인보3)》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오페라단
92	2008.09	지성호	《홍부와 놀부》	고전소설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호남오페라단
93	2008.10	이철우	《장화 왕후》	인물	나주시문화예술회관	빛소리오페라단
94	2009.03	박영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문학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예술음악무대
95	2009.06	지광웅	《대한국인 안중근》	인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서울로망스오케스트라
96	2009.09	진규영	《불목하늬의 연가》	전설	영산아트홀	예인예술기획
97	2009.10	조성룡	《윈어맘(등소화하늘꽃)》	기타	대구오페라하우스	경북도, 안동시
98	2009.10	우종익	《메밀꽃 필 무렵》	문학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구미오페라단
99	2009.12	허결재	《겨울그림자(만인보4)》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오페라단
100	2010.10	김봉호	《고현 예찬》	인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 MBC
101	2010.09	이용주	《이화이야기》	기타	충무아트홀 대극장	부산광역시
102	2010.10	이호준	《심산 김장숙》	인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로얄오페라단
103	2010.10	임주섭	《항량》	전설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금오오페라단
104	2010.11	박창민	《왕산 허위》	인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구미오페라단
105	2010.11	허결재	《꽃 지어 꽃피고》	역사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빛소리오페라단
106	2010.12	최우정	《연서》	기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오페라단
107	2010.12	진영민	《이매탈》	기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벨라보체오페라단
108	2010.12	황호준	《아랑》	설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국립오페라단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의 현황과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 21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109	2010.12	최천희	《대장경》	문학	창원성신아트홀 대공연장	경남음악협회
110	2011.08	박지운	《선덕여왕》	인물	대구문화체육회관 대공연장	대구문화체육회관
111	2011.10	김지영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문학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112	2011.10	박지운	《도시연가(운수좋은날)》	기타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113	2011.10	신동일	《Take out》	기타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통방체임보케스트라
114	2011.11	허결재	《바다파도(만인보5)》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오페라단
115	2012.03	박재훈	《손양원》	인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고려오페라단
116	2012.04	성용원	《흑부리영감과 음치도깨비》	설화	빛고을시민문화관	강숙자오페라리인
117	2012.05	이근형	《나는 이종섭이다》	문학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118	2012.06	임금수	《천년의 사랑》	인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119	2012.06	이호준	《애 징비록》	문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로얄오페라단
120	2012.06	이호준	《귀향》	인물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여수시립합창단
121	2012.09	박창민	《광염 소나타》	문학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구미오페라단
122	2012.10	김성재	《청리언덕》	인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123	2012.11	허결재	《봄꿈(만인보6)》	문학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오페라단
124	2013.02	한정임	《아리 아리랑》	기타	고양아리누리 아람극장	한 오페라단
125	2013.02	성세인	《선 살의 남자》	문학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자인오페라양상블
126	2013.05	최현석	《도산 안창호》	인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홍사단오페라단
127	2013.09	백현주	《해운대》	역사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해운대문화회관
128	2013.10	지성호	《투갈다》	인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호남오페라단
129	2013.12	임희선	《고집불통 응》	고전소설	상명대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하트뮤직
130	2013.12	이건용	《왕자와 크리스마스》	기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청소년합창단
131	2014.04	김진한	《부활》	기타	대구순복음교회당	로얄오페라단
132	2014.04	최현석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개의시선》	기타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선교진흥단 징검다리
133	2014.10	신동일	《로미오 대 줄리엣》	기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팩	마포문화재단
134	2014.11	최우정	《달이 물로 걸어오듯》	연극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오페라단
135	2014.12	정순도, 정재은, 성용원, 신원희	《나인테일즈(구미호)》	전설	세종문화회관 꿈의숲아트센터	브라더뮤직컴퍼니
136	2014.12	박지운	《포은 정몽주》	인물	용인 포은아트홀	지음오페라단
137	2014.12	허결재	《아리랑(만인보7)》	문학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전북오페라단
138	2015.01	박창민	《배비장전》	고전소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더뮤즈오페라단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139	2015.02	백현주	《선비》	역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사)조선오페라단
140	2015.02	이근형	《운영》	역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오페리앙상블
141	2015.08	이철우	《김락》	인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로얄오페라단
142	2015.08	최현석	《청 VS 뽕》	고전소설	충랑구민회관 대공연장	라벨라오페라단
143	2015.09	최현석	《신라향기 죽지랑》	설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문화센터공연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144	2015.10	허결재	《학동엄마》	기타	광주아트홀	빛소리오페라단
145	2015.11	진영민	《가락국기》	문학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146	2016.02	최명훈	《열여섯 번의 안녕》	기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오페라단
147	2016.05	오이돈	《소리마녀의 비밀상자》	기타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솔리스트디바오페라단
148	2016.06	서순정	《미호던》	전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누오바오페라단
149	2016.06	이근형	《사마천》	인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뉴서울오페라단
150	2016.09	현석주	《이중섭》	인물	서귀포예술의전당대극장	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
151	2016.09	이범식	《아름다운 투나바위》	문학	CTS아트홀	CTS오페라단
152	2016.09	최현석	《우륵》	인물	충주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륵오페라단
153	2016.10	최현석	《불량 심청》	고전소설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라벨라오페라단
154	2016.11	최현석	《신라향기III 사동요 -명랑선화》	설화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왕경오페라단
155	2016.12	정순도	《단종의 눈물》	역사	치악예술관	원주오페라단
156	2016.12	이용주	《박혁거세》	설화	경주예술의전당	경주시립합창단
157	2017.05	고태암	《붉은 자화상》	인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오페리앙상블
158	2017.07	최천희	《윤홍신》	인물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로얄펠하모니오케스트라
159	2017.07	유대안	《날피와 원님의 사랑》	전설	구미시 강동문화회관	구미오페라단
160	2017.10	현석주	《대전 블루스》	기타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글로벌아트오페라단
161	2017.10	나실인	《나비의 꿈》	인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서울오페리앙상블
162	2017.11	지성호	《달하, 비취시오라》	설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호남오페라단
163	2017.11	이용탁	《청》	고전소설	우리금융아트홀	가온오페라단
164	2017.12	정순도	《메밀꽃 필 무렵》	문학	치악예술관	원주오페라단
165	2017.12	최현석	《신라향기III 차용가 -차용's처》	설화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왕경오페라단
166	2018.03	이재신	《1953》	역사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오페리앙상블
167	2018.03	김주원	《너에게 간다》	인물	고양아트누리 이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8	2018.05	서순정	《여우던》	전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누오바오페라단

번호	초연	작곡가	작품	대본출처	공연장소	주최
169	2018.06	한유한, 정율성	《바람과 구름이 되어》	오페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그림씨아티밴드
170	2018.08	이호준	《석주 이상룡》	인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로얄오페라단
171	2018.09	진영민	《윤심덕, 사의 찬미》	인물	대구오페라하우스	영남오페라단
172	2018.10	박창민	《놀부전》	고전소설	대구 북구 어울아트센터	뉴오페라컴퍼니
173	2018.10	최정훈	《1948년 침묵》	문학	GS칼텍스예술마루 대극장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174	2018.10	최현석	《신라향기HV 마담수로》	설화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왕경오페라단
175	2018.11	이호준	《nowhere》	기타	성주문화예술회관	로얄오페라단
176	2018.11	손정훈	《금지옥엽》	인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독도오페라단
177	2018.11	최현석	《처사 남명》	인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경상오페라단
178	2018.12	장민호	《어사 박문수》	인물	평택북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오페라단
179	2018.12	정율성	《망부운》	전설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오페라단
180	2018.12	권지원	《허난설헌》	인물	서울서초구 SCC홀	크리에이티브 유니언
181	2019.03	박재훈	《함성 1919》	역사	여의도 KBS홀	고려오페라단
182	2019.03	김천욱	《인형의 신전》	역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영산오페라단
183	2019.03	나실인	《검은 리코더》	기타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라벨라오페라단
184	2019.03	이지은	《타오르는 불꽃, 열사 유관순》	인물	노원문화예술회관	폰테뮤직오페라단
185	2019.06	이재신	《그 소녀의 이야기》	실화	에틀란타 한인회관	에틀란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186	2019.07	안효영	《뱃밭길러》	기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오페라단
187	2019.09	최우정	《1945》	연극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188	2019.11	김보현	《중원의 우묵》	인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충북챔버오케스트라
189	2019.11	이용주	《장옥진》	인물	세종문화예술회관	한음오페라단
190	2019.11	성용원	《밥할머니》	전설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엠포티아보컬앙상블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를 가장 많이 작곡하여 초연한 작곡가는 최현석(10개), 허결재(9개), 이호준(6개), 이철우, 지성호, 진영민(5개), 박창민, 임금수(4개)의 순이다. 그 외에 박재훈, 박지은, 이건용, 이근형, 이승선, 이용주, 정순도, 최우정, 최천희가 각각 3개 작품을 초연했고, 강석희, 나실인, 나인용, 박영근, 백현주, 서순정, 성용원, 신동일, 이영조, 이재신, 이종구, 현석주가 2개 작품을 초연했다.

2000년도 이전부터 2000년도 이후까지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국오페라를 작곡·초연한 작곡가는 강석희, 박영근, 박재훈, 오숙자, 이건용, 이영조, 이종구 등이다. 그 외의 작곡가들은 새롭게 한국오페라계에 진입한 작곡가들이며, 그중에는 젊은 세대의 작곡가들도 많다.

초연 작품수가 많은 작곡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특정 오페라단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페라 작곡가가 한 단체의 ‘전속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오페라의 정착 내지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총 10개의 한국오페라를 초연한 최현석의 경우에는 왕경오페라단과 함께 ‘신라향가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다. 총 9개의 한국오페라를 초연한 허걸재의 경우에는 전북오페라단과 함께 시인 고은(高銀, 1933~)의 만인보⁸⁾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오페라화하고 있다. 그 외 이호준은 로얄오페라단과 이철우와 지성호는 호남오페라단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총 146개 공연 중 서울에서 56회(38.4%), 서울 외 지역에서 87회(59.6%), 외국에서 3회(2.0%)의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이 개최되었다. 2000년 이전의 경우, 서울에서의 초연 공연이 전체 공연의 81.8%를 차지했고, 서울 외 지역의 공연이 18.2%였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2000년 이후에는 서울 외 지역에서의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을 주최한 오페라단별로는 호남오페라단이 9회로 가장 많고, 국립오페라단, 로얄오페라단, 전북오페라단이 각각 7회이다. 4회를 개최한 오페라단은 서울시오페라단, 고려오페라단, 구미오페라단, 디 오페라단, 빛소리오페라단이며, 3회를 개최한 오페라단은 대구오페라하우스, 뉴서울

8) 만인보(萬人譜)는 고은의 연작시로 1986년부터 2010까지 총 30권으로 발간되었다. 각 작품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고은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애정 어린 시선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0. 10. 9.

오페라단, 라벨라오페라단, 삶과꿈싱어즈, 서울오페라앙상블, 왕경오페라단이다. 그 외에 2회를 개최한 오페라단은 대구시립오페라단, 고양오페라단, 누오바오페라단, 원주오페라단, 한국오페라단이며, 그 밖의 오페라단이나 단체들은 각각 1회씩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을 개최했다. 2000년 이전 국립오페라단이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을 27.2% 정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오페라단이 골고루 한국오페라 초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단법인인 호남오페라단이 공공단체인 국립오페라단보다도 더 많은 한국오페라를 초연했다는 점은 한국오페라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호남오페라단은 한국오페라 부문에서 9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창작 오페라로 선정되면서 이 부문의 독보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⁹⁾

대본의 출처별로는 다른 장르의 작품을 오페라 대본화한 작품은 총 31개(21.2%)이다. 그중 소설, 시 등의 문학 작품을 대본화한 것이 25개로 가장 많고, 그 외 연극 희곡에서 온 것이 4개, 영화 1개, 기존의 오페라 두 개를 합작한 것¹⁰⁾이 1개이다. 한편, 오페라 대본으로 직접 창작한 작품은 총 115개(78.8%)이다. 그중 역사적 인물이나 지역의 주요 인물들을 소재로 창작된 것이 50개로 가장 많다. 그 외 고전소설이나, 설화,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이 31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 13개, 기타 작품이 21개이다.

9) “(사)호남오페라단 홈페이지,” http://www.호남오페라단.한국/index.php?pgurl=etc/sub_101, 검색일: 2020. 10. 5.

10) 2018년 6월 초연된 오페라 《바람과 구름이 되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음악회-백년의 약속’공연의 일환으로, 한유한의 오페라 《아리랑》(1940년)과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1962년)에 삽입된 곡들을 발췌해 항일투쟁을 벌이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새롭게 연출한 작품이다. 이주현, “한유한·정율성이 만난 오페라 《바람과 구름이 되어》,”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46549.html>, 『한겨레』, 2018. 5. 28. 검색일: 2020. 10. 15.

[표 4] 2000년 이후 초연 한국오페라 대본 출처표

분류	장르	작품수	소계	비율	소계
타 장르 작품 오페라 대본화	문학	25	31	17.1%	21.2%
	연극	4		2.7%	
	영화	1		0.7%	
	오페라	1		0.7%	
직접 오페라로 창작	인물	50	115	34.2%	78.8%
	고전물	31		21.2%	
	역사	13		8.9%	
	기타	21		14.5%	
계		146	146	100%	100%

2000년 이전과 이후 초연된 한국오페라의 대본 출처를 비교해 보면, 타 장르 작품을 오페라 대본화한 비율과 직접 오페라로 창작을 한 비율이 각각 약 20%대와 약 70%대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학과 연극 장르를 비교해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연극 희곡을 오페라화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문학 3개 대 연극 8개), 2000년대 이후에는 문학 작품을 오페라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학 25개 대 연극 4개).

직접 오페라로 창작된 작품의 소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고전물(11개)→인물(9개)→역사(8개)→기타(5개)의 순으로 소재 면에서 고전물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에는 인물(50개)→고전물(31개)→기타(21개)→역사(13개) 순으로 인물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전체 작품의 34.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는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것

을 지역의 문화상품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전물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도 높은 편인데, 고전소설이나 설화, 전설 등은 스토리 전개를 관객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객의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역의 설화나 전설 등은 역시 지역 문화상품화에 유용한 소재가 된다. 그 외에 현실적 이슈나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룬 기타 작품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오페라 소재의 확대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역사를 소재로 다루는 비율은 2000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

2000년 이전과 이후 초연 한국오페라 대본의 출처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2000년 이전과 이후 초연 한국오페라 대본 출처 비교표

분류	장르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작품수	비율	소계	작품수	비율	소계
타 장르 작품 오페라 대본화	문학	3	6.8%	11(25.0%)	25	17.1%	31(21.2%)
	연극	8	18.2%		4	2.7%	
	영화	-	-		1	0.7%	
	오페라	-	-		1	0.7%	
직접 오페라로 창작	인물	9	20.5%	33(75.0%)	50	34.2%	115(78.8%)
	고전물	11	25.0%		31	21.2%	
	역사	8	18.2%		13	8.9%	
	기타	5	11.3%		21	14.5%	
계		44	100%	44(100%)	146	100%	146(100%)

3.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 활성화의 원인

1) 오페라 축제를 통한 한국오페라 보급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계가 활성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다수의 오페라 축제에서 한국오페라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연 레퍼토리에 한국오페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일종의 쿼터제가 없는 것이 한국오페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¹¹⁾ 그러나 그러한 쿼터제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수의 오페라 축제에서는 한국오페라를 매회 1편 정도씩은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오페라의 보급 및 발전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유일의 국공립단체로서 일종의 의무감에 의해 한국오페라 공연을 레퍼토리에 포함시켰다면, 현재는 대한민국오페라축제, 소극장오페라축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다수의 한국오페라가 초연 혹은 재공연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¹²⁾은 외국의 소극장용 오페라를 주된 레퍼토리로 올리기는 했지만, 한국오페라도 지속적으로 공연하여 한국오페라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¹³⁾ 이 페스티벌을 통해 초연된 한국오페라는 김경중의 《돌이서 한발로》(1999)와 이진용의 《동승》(2004)

11) 현재 일본은 오페라전문극장인 도쿄 신국립극장이 1년에 일본오페라를 2편 이상 의무적으로 공연하도록 하는 공연 쿼터제를 시행하여 자국의 오페라를 보존,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오페라 공연 횟수에 있어 의무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손수연, “한국과 일본의 오페라 수용과 발전과정에 대한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2017), 155.

12)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17회까지 이어지다가 2016년에는 개최되지 못하고 2017년에 18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20년인 올해에 19회로 다시 페스티벌 개최가 확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가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13) 한국오페라70년사 발간위원회 편, 『한국오페라70년사 1948~2017』 (서울: 리움북스, 2018), 432.

2편밖에 없다. 그러나 본 축제에서는 동일한 한국오페라 작품을 여러 번 재공연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재공연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한국오페라 작품에 있어 공연을 되풀이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제 페스티벌 중 공석준의 《결혼》이 총 4회 공연되었고, 그 외에 박영근의 《보석과 여인》, 김경중의 《둘이서 한발로》, 이건용의 《봄봄》이 각각 2회씩 공연되었다.

[표 6] 한국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한국오페라 공연 작품 목록

회차	일시	작곡가	작품명	장소	오페라단	초연여부
1회	1999.02	공석준	《결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	한우리오페라단	-
	1999.02	박영근	《보석과 여인》	국립중앙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
	1999.02	김경중	《둘이서 한발로》	국립중앙극장 소극장	서울오페라양상블	초연
3회	2001.03	이건용	《봄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국립오페라단	-
5회	2003.03	공석준	《결혼》	국립극장 달오름	예술음악무대	-
6회	2004.11	이건용	《동승》	노원문예회관	세종오페라단	초연
10회	2008.07	이건용	《봄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세종오페라단	-
	2008.07	공석준	《결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예술음악무대	-
11회	2009.07	김경중	《둘이서 한발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울오페라양상블	-
	2009.07	박영근	《보석과 여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울오페라양상블	-
15회	2013.03	이근형	《나는 이중섭이다》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코리아체임버오페라단	-
16회	2014.09	공석준	《결혼》	충무아트홀 블랙	예술음악무대	-

2003년도에는 대구에도 오페라 전문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개관기념공연으로 문익점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이영조의 《목화》를 대구시립오페라단 주최로 초연하였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개관 이후 ‘대구오페라축제’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로 행사의 명칭을 바꾸어 매년 오페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 축제의 주요

레퍼토리에 한국오페라를 거의 매년 한 편씩 포함시키고, 특히 초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한국오페라 발전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오페라축제에서 공연했던 한국오페라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7] 대구오페라축제 한국오페라 공연 작품 목록

회차	연도	작곡가	작품	공연장소	오페라단	초연여부
1회	2003.10	김동진	《심청》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시오페라단	-
2회	2004.11	이승선	《무영탑》	대구오페라하우스	디오페라단	-
4회	2006.08	진영민	《불의 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연
5회	2007.08	이승선	《무영탑》	대구오페라하우스	디오페라단	-
6회	2008.10	임준희	《친생연분》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
	2008.10	현재명	《춘향전》	대구오페라하우스	뉴서울오페라단	-
7회	2009.10	조성룡	《원이 엄마》	대구오페라하우스	포항오페라단	초연
8회	2010.10	이호준	《심산 김창숙》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로얄오페라단	초연
9회	2011.10	박지운	《도시연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연
	2011.10	김봉호	《고현예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울산문화방송	-
10회	2012.10	김성재	《청라언덕》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축제조직위	초연
11회	2013.10	김성재	《청라언덕》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개작 재공연
12회	2014.10	박영근	《보석과 여인》	아트팩토리 청춘	대구오페라하우스	
13회	2015.11	진영민	《가락국기》	대구오페라하우스	광복70주년 한국오페라	초연
15회	2017.11	조성룡	《능소화 하늘꽃》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원이 엄마》의 개작
	2017.11	백병동	《이화부부》	대구오페라하우스 카메라타	대구오페라하우스/ 현대성악앙상블	-
16회	2018.09	진영민	《윤심덕, 사의 찬미》	대구오페라하우스	영남오페라단	초연
17회	2019.09	최우정	《1945》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
2020 대구오페라 축제 ¹⁴⁾	2020.09	김동명	《춘향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연

14) 코로나19 여파로 제18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021년으로 연기하고 2020년에는 '2020 대구오페라축제'로 축소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대한민국민간오페라단연합회 주최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대의 오페라 축제이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거의 매회 한국오페라를 2편 이상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오페라를 공연작으로 선정함에 있어 초연 작품보다는 과거에 공연된 작품 중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재공연하는 방식을 택한다. 따라서 한국오페라계에 있어서는 이 페스티벌에 참가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력이 된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서 공연된 한국오페라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8]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한국오페라 공연 목록

회차	연도	작곡가	작품	공연장소	오페라단	초연여부
2회	2011.07	지성호	《논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호남오페라단	-
	2011.07	우종억	《매일 꽃 필 무렵》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구미오페라단	-
4회	2013.05	박재훈	《손양원》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고려오페라단	-
	2013.06	이영조	《차용》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
5회	2014.05	지성호	《루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호남오페라단	-
	2014.05	임준희	《천생연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
6회	2015.06	박영근	《주몽》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
7회	2016.05	성세인	《신 살의 남자》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자인오페라앙상블	-
8회	2017.05	김달성	《자명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노블아트오페라단	-
	2017.05	임희선	《고집불통 용》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하트뮤직	-
	2017.06	이건용	《봄봄》 & 《아리랑난장굿》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그랜드오페라단	-
9회	2018.05	서순정	《여우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누오바오페라단	초연
	2018.05	지성호	판오페라 《홍부와 놀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코리아아르츠그룹	-
10회	2019.05	지성호	《달하, 비취시오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호남오페라단	-
	2019.05	박장민	《배비장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더뮤즈오페라단	-
11회	2020.08	임준희	《천생연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누오바오페라단	-
	2020.09	전예은	《레드 슈즈》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국립오페라단	초연

한편, 한국오페라만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이 개최된 경우도 있다.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립극장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한국오페라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초연 공연은 없었고 기존에 공연되었던 작품 중 총 4개의 한국오페라 작품이 공연되었다. 이 페스티벌이 지속되었다면 한국오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 분명한데 어떠한 이유인지 단 1회로 끝난 것이 아쉽다.

대한민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9] 대한민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 공연 작품 목록

회차	연도	작곡가	작품	공연장소	오페라단	초연여부
1회	2015.01	박창민	《배비장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더뮤즈오페라단	-
	2015.01	박재훈	《손양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고려오페라단	-
	2015.01	현재명	《춘향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김선국제오페라단	-
	2015.02	백현주	《선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조선오페라단	-

한국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1999~2020), 대구국제오페라축제(2003~2020),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2010~2020), 대한민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2015) 등 오페라 축제들이 축제의 주요 레퍼토리를 구성함에 있어 한국오페라를 지속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한국오페라 발전에 큰 요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오페라단이나 작곡가 입장에서는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작품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오페라 축제에 참여하는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창작오페라를 감상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오페라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2) 오페라 창작 지원 사업의 정착

오페라창작 지원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한국오페라 활성화에 큰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오페라 분야의 창작 지원이 단순히 오페라단에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작곡가에게 작품료를 지급하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창작 단계부터 대본가와 작곡가가 서로 협업하여 하나의 오페라 작품을 점차 확대해가면서 완성하는 방식의 창작 지원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과거에는 작곡가 개인이 대본도 직접 쓰고 거기에 음악을 입혀 작품을 완성하였다면, 이제는 대본가와 작곡가가 함께 토의를 거쳐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그 과정에도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해주는 일종의 아카데미 형식의 창작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작품의 완성도나 오페라 전문 대본가 및 작곡가의 배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국립오페라단/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지원 사업

한국오페라에 대한 공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창작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국립오페라단의 ‘맘(MOM)창작오페라 공모전’¹⁵⁾이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한국오페라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본을 공모하고 그 대본에 음악을 붙일 작곡가를 공모하여 쇼케이스 공연으로 경합을 벌인 뒤 한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한국오페라 지원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사업이다. 공모전을 통해 대본가와 작곡가를 발굴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창작 워크숍 등의 창작팩토리 과정을 거쳐 단막오페라를 제작한다. 제작된 단막오페라는 쇼케이스 공연 형식으로 공연되며 전문가위원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작이

15) ‘맘 프로젝트’는 엄마의 마음을 오페라에 담아 인류애를 실천하는 예술운동으로 키우고, 만들고, 나누고, 보듬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오페라단의 발전 전략이자 비전이다. “제2회 국립오페라단 맘(MOM)창작 공모전,” <https://blog.naver.com/junilim21/30087983932>, 검색일: 2020. 9. 29.

되면 장막오페라로 재구성되어 그 다음 해에 다시 공연된다.¹⁶⁾

맘(MOM)창작오페라 공모전은 국립오페라단이 세계무대를 향한 국가브랜드 오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시작한 창작 지원 사업이다.¹⁷⁾ 이 사업은 한국오페라의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 오페라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동시에 공모 형식으로 오페라 작곡가를 선정하다 보니 보다 젊은 층의 대본가, 작곡가들이 오페라 장르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 오페라 전문 인력들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맘(MOM)창작오페라 공모전은 아쉽게도 2009년 제1회로 시작하여 2011년 제3회로 마감되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작팩토리 사업’에 오페라 분야가 생기면서 두 사업을 병합하여 진행하다가 2012년부터는 창작팩토리 사업에 흡수되어 명칭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팩토리 사업은 2008년 9월 시작되었다. 예술창작 지원에 있어 단기적인 제작비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관객 개발과 홍보의 측면까지 고려하는 단계별 창작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 과정을 아이디어(창작실험활동)-초연(올해의 신작)-재공연(올해의 레퍼토리)로 구분하여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⁸⁾

2008년 연극과 뮤지컬(주관 명동예술극장) 분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오페라(주관 국립오페라단), 2011년에는 발레(주관 국립발레단), 2013에는 현대무용(주관 국립현대무용단)으로 분야가 확대되었다. 2013년 3월에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이후 ‘창작산실’로 지칭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4년 이후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특정 주관단체를 두지 않고 전체 분

16) “[문학/수기] 제3회 국립오페라단 맘(MOM)창작 공모전,” <https://blog.naver.com/thinkcontest/110102150079>, 검색일: 2020. 9. 29.

17) “제2회 국립오페라단 맘(MOM)창작 공모전 공고,” <https://blog.naver.com/djart21/50083903137>, 검색일: 2020. 9. 29.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실명제 사업내역서_공연예술창작산실,” <https://www.arko.or.kr/board/view/789?bid=665&cid=1603403>, 검색일: 2020. 9. 30.

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페라 분야에서는 작곡가와 극작가가 각 1인씩 팀을 이루어 지원 신청을 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창작활동 지원비를 받아 쇼케이스 공연을 개최하고 전문평가단 및 시민평가단에 의해 실연심의회가 이루어진다. 이 실연심의회를 통해 ‘올해의 신작 한국오페라 연계지원 작품’으로 2편을 최종 선정하여 전막 공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⁹⁾

국립오페라단의 ‘맘(MOM)창작오페라 공모전’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팩토리 사업’ 내지는 ‘창작산실’을 통해 총 16개의 한국오페라 작품이 전막오페라로 공연되었다. 또한 미당선된 작품들 중에서도 후에 작품을 완성하여 공연한 경우도 있다.²⁰⁾ 이 사업들을 통해 발굴된 한국오페라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0] 맘(MOM)창작오페라 공모전, 창작팩토리 사업, 창작산실 선정 작품 목록

업명	연도	작품	작곡가	대본가	당선여부	공연단체	초연 날짜
한국 오페라 공모사업	2009	《지귀》	김성근	이윤설	미당선	-	-
		《아랑》	황호준	김민정	당선	국립오페라단	2010.06.26.~27, 명동예술극장 초연 (60분 공연) 2010.12.16.~19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90분 공연)
창작 팩토리 + 한국 오페라 공모사업	2010	《어여쁜 노랑나비》	김준현	김준현	미당선	-	-
		《도시연가》	박지운	박지운	당선	국립오페라단	2011.10.21.~2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초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김지영	김지영	당선	국립오페라단	2011.10.21.~23, 강동아트센터 초연
		《도깨비 동물원》	김은혜	탁계석	미당선	-	-
		《시절인연》	성세인		미당선	-	-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창작산실)한국오페라발굴지원,” https://www.arko.or.kr/content/popup/2020/pup_2020_7-1.jsp, 검색일: 2020. 9. 30.

20) 2011년 참여했던 박창민의 《광염 소나타》는 2012년 구미오페라단 주최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 참여했던 서순정의 《미호》는 2016년 누오바 오페라단 주최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업명	연도	작품	작곡가	대본가	당선여부	공연단체	초연 날짜
창작팩토리 + mam한국 오페라 공모사업	2011	《나는 이중섭이다》	이근형	이지은	당선	코리아안체임버 오케스트라	2012.05.18.~20, 의정부예술의전당
		《천년의 사랑》	임공수	최현목	당선	대구오페라 하우스	2012.06.01.~02, 대구오페라하우스
		《비가 오는 날엔 생각해》	-	-	미당선	-	-
		《광염 소나타》	박창민	강문숙	미당선	구미오페라단	2012.09.13,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창작팩토리	2012	《이생규장전》	박나영	-	미당선	-	-
		《신 살의 남자》	성세인	조정일	당선	부평아트센터/ (사)TIM양상블	2013.02.22.~23 부평아트센터해누리극장
		《아리 아리랑》	한정임	한정임	당선	국립오페라단/ 한 오페라단	2013.02.20.~21,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솔로몬의 연인》	-	-	미당선	-	-
공연예술 창작산실	2013	《현해탄》	최정훈	차현석	미당선	-	-
		《수준노》	서순정	이경재	미당선	-	-
		《루갈다》	지성호	김정수	당선	호남오페라단	2013.10.18.~2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고집불통 용》	임희선	임희선	당선	하트뮤지	2013.12.07.~08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2014	《십청》	-	-	미당선	-	-
		《유랑》	박창민	-	미당선	-	-
		《운영(서천 꿈길, 저편)》	이근형	강철수	당선	서울오페라 앙상블	2015.02.14.~15 국립극장 해오름
		《단군 왕검》	심진섭	-	미당선	-	-
	2015 (지원대상 없음)	《화동아리랑》	-	-	미당선	-	-
		《유랑》	-	-	미당선	-	-
		《단군 왕검》	-	-	미당선	-	-
		《안중근》	-	-	미당선	-	-
		《미호》	서순정	이민희	미당선	누오바 오페라단	2016.06.11, 국립극장 해오름
	2016	《붉은 자화상》	고태암	김민정	당선	서울오페라 앙상블	2017.05.06.~07 국립극장 해오름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의 현황과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 37

업명	연도	작품	작곡가	대본가	당선여부	공연단체	초연 날짜
공연예술 창작산실	2017	《해무》	정원기	김민정	미당선	-	-
		《망각의 나라》	현석주	신영선	미당선	-	-
		《반달 설야》	-	-	미당선	-	-
		《1953》	이재신	이성호	당선	오페리아상블C	2018.03.09.~10 강동아트센터
	2018	《가짜아이》	-	-	미당선	-	-
		《꽃을 바치는 시간》	최우정	이윤택	-	-	연출 측 포기로 공연 중단
		《날개》	-	-	미당선	-	-
		《달의 제국》	-	-	미당선	-	-
		《인형의 신전》	김천옥	신영선	당선	영산오페라단	2019.03.08.~09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찬장 할머니네 집에서》 (검은 리코더)	나실인	윤미현	당선	라벨라 오페라단	2019.03.22.~23 강동아트센터
	2019	《뉴스피드》	현석주	김중원	미당선	-	-
		《김부장의 죽음》	오예승	신영선	당선	오페라뱅크	2020.02.05.~08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한 아이 이야기》	신동일	이지홍	미당선	-	-
		《까마귀》	공혜린	고연옥	당선	라벨라 오페라단	2020.02.07.~08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이메네》	이나리메	신영선	미당선	-	-
	2020	《시막속의 흰개미》	김주원	황정은	당선	-	2021년 초연 예정
		《낭만신사 가추비》	정원기	사성구	미당선	-	-
		《가버나움》	현석주	김숙영	미당선	-	-
		《새야새야》	고태암	김민정	미당선	-	-
		《뱀이 심장을 먹었어》	정진호	이난영	당선	-	2021년 초연 예정
2021 실연심의 대상작	《세이렌》	류창순	김도윤	미정	-	-	
	《시간거미줄》	이지은	김재청	미정	-	-	
	《황허의 뱃사공》	고태암	김민정	미정	-	-	
	《버블라인》	김천옥	오은희	미정	-	-	
	《장충》	안효영	김은성	미정	-	-	

(2) 서울시오페라단 창작 지원 사업: 세종 카메라타

2012년에 시작된 서울시오페라단의 ‘세종 카메라타’²¹⁾는 당시 단장이었던 작곡가 출신 이건용이 한국어로 된 좋은 오페라의 개발을 위해 국내 중견 대본가 및 작곡가들과 결성한 모임이다. 대본가와 작곡가가 한 팀을 이루어 수차례의 토론을 벌이는 ‘창작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고 시사회 성격의 ‘오페라 리딩 공연’을 펼친다. 이 리딩 공연에서 여러 작품을 선보인 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 1편을 본 공연에 내놓는다.²²⁾

전반적인 과정은 ‘대본가-작곡가 팀 구성→쇼케이스/리딩 공연→평가 후 최종작 선정→전막 공연’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종 카메라타에서는 작곡가와 작가가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말과 음악을 이해하며, 한국의 희곡 작품을 바탕으로 한 한국 오페라를 탐색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창작가들은 작품을 이해하고, 우리 말의 흐름과 뉘앙스, 모음과 장단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작곡을 한다.²³⁾ 이를 통해 한국어의 특성을 살린 한국오페라 작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한국오페라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 카메라타의 오페라 리딩 공연에 참가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21) ‘세종 카메라타’라는 명칭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페라를 탄생시킨 선구자들의 이름인 ‘카메라타’(Camerata)와 우리의 말글 생활을 오늘처럼 가능하게 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세종 카메라타,”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15412>, 검색일: 2020. 9. 25.
- 22) 장지영, “세종 카메라타, 한국오페라 새 지평 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6162&code=13110000&cp=nv>, 『국민일보』, 2016. 2. 15. 검색일: 2020. 9. 25.
- 23) 신성아, “연극이 오페라로…세종 카메라타 리딩공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274663&memberNo=35797485&vType=VERTICAL>, 『시장경제신문』, 2017. 6. 23. 검색일: 2020. 10. 8.

[표 11] 세종 카메라타 오페라 리딩 공연 작품 목록

연도	작품	작곡가	대본가	당선여부	초연 날짜	비고
2013	《달이 물로 걸어오듯》	최우정	고연옥	당선	2014.11.20~23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세종 카메라타 오페라 시리즈 I
	《당신 이야기》	황호준	고재귀	미당선	-	-
	《로미오 대 줄리엣》	신동일	박춘근	미당선	-	-
	《바리》	임준희	배삼식	미당선	-	-
2015	《검으나 흰 땅》	신동일	박춘근	미당선	-	-
	《마녀》	임준희	고재귀	미당선	-	-
	《열 여섯 번의 안녕》	최명훈	박춘근	당선	2016.02.26.~27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세종 카메라타 오페라 시리즈 II
2017	《달나라 연속극》	신동일	김은성	미당선	-	-
	《비행사》	나실인	조정일	미당선	-	-
	《땃밭길러》	안효영	윤미현	당선	2019.07.03.~06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세종 카메라타 오페라 시리즈 III
	《마녀》	임준희	고재귀	미당선	-	-

덧붙여, 이러한 창작 지원 사업에서 최종작 선정에 있어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것도 한국오페라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민평가단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은 당연히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향후 한국오페라의 주요 관객층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지자체 및 지방오페라단의 관심 증대

과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오페라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오페라 창작 지원을 넘어서서 각 지역의 오페라단들이 자신의 지역

적 특성을 가진 오페라들을 자체적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오페라단이 ‘한국오페라도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과 맞물려있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

위의 한국오페라 초연 현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00년 이전에는 서울 대 서울 외 지역의 비율이 81.4% 대 18.6%로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이 서울 주도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2000년 이후에는 서울 대 서울 외 지역의 비율이 38.4% 대 59.6%로 서울 외 지역에서의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이 서울에서 개최된 경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한국오페라 초연을 주최한 오페라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호남오페라단, 로얄오페라단, 전북오페라단 등 사립오페라단이 국립오페라단 이상으로 한국오페라 초연 공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전주(호남오페라단), 대구(로얄오페라단), 군산(전북오페라단)에 소재지를 둔 오페라단으로서 한국오페라를 직접 제작하여 공연하는 활동을 지속하여 지역에 한국오페라를 보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4) 오페라 전문 대본가와 작곡가의 등장

한국오페라계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오페라 전문 대본가 및 작곡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본가의 측면에서는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던 희곡 작가들 중에서 희곡과 오페라 대본과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효과적인 오페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 대본이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는 지는 이해하고 오페라 대본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작곡가의 측면에서는 기악곡, 성악곡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작곡을 하는 작곡가들과는 별개로, 오페라, 발레음악, 연극음악 등 서사적 내용을 가지는 작품의 음악 창작만을 전문으로 하는 작곡가들이 눈에 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맘창작오페라 공모전’, ‘창작팩토리’, ‘창작산실’, ‘세종 카메라타’ 등 오페라 창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여러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며, 음

악극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위의 창작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작곡가들을 참여 횟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신동일이 4회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고태암, 임준희, 현석주가 각각 3회씩 참여하였다. 또한 김천욱, 나실인, 박창민, 서순정, 성세인, 안효영, 이근형, 정원기, 최우정, 황호준이 각각 2회씩 창작 지원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에는 현재까지도 오페라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작곡가들이 많다.

작가들 중에는 참여 횟수별로 김민정 5회, 신영선 4회, 고재귀, 박춘근 3회, 고연욱, 김은성, 윤미현, 조정일이 각각 2회씩 오페라 대본 작업에 참여했다.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의 결과로 음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본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오페라 대본가가 육성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오페라계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창작 지원 사업들을 통해 특정 대본가와 특정 작곡가가 짝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작곡가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와 오페라 대본가 다 폰테(L. da Ponte, 1749~1838)의 협업으로 《피가로의 결혼》(Nozze di Figaro), 《돈 조반니》(Don Giovanni),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 등의 명작이 나온 것처럼 특정 대본가와 특정 작곡가의 지속적인 협업은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위의 창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곡가 고태암은 대본가 김민정과, 작곡가 신동일은 대본가 박춘근과, 작곡가 임준희는 대본가 고재귀와 각각 2개 작품 이상을 함께 창작했다.

오페라 전문 작곡가와 대본가 등장 결과로, 한국오페라 대본의 구성력이 매우 높아지고, 소재가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고전 설화 등에 기초를 둔 대본들이 많았다면²⁴⁾ 이제는 현실 사회의 이슈를 담은 대본

24) '한국오페라는 우리 전통의 것을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단편적이기도 일률적인 경향은 한국오페라 소재가 갖는 한계성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손수연, "한국 한국오페라 소재의 특징 분석과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5 (2015), 48.

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관객들과의 정서적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미 문학작품으로 발표되거나 연극으로 공연되어 완성도를 인정받은 희곡 작품을 오페라 대본화하는 작품도 많아지면서 대본 자체의 탄탄함이 곧 오페라 작품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4. 맺으며

2000년 이후 한국오페라가 새롭게 창작·공연된 횟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최초의 한국오페라 초연이 이루어진 1950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 총 44편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2000년대(2000년~2009년) 55편, 2010년대(2010년~2019년) 91편 등 총 146편의 한국오페라가 초연된다. 지난 10년간의 수치로만 계산해본다면, 일 년에 약 9편의 한국오페라의 초연이 이루어진 셈이다. 오페라 공연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고 더군다나 한국오페라는 무대에 올리기가 더욱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한국오페라의 양적 증가에 대한 수치는 매우 놀랍다.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한국오페라 초연 양상을 비교해 보면, 작곡가 측면에서 2000년 이전에는 오페라 작곡가가 기성 작곡가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숫자 면에서도 미미했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새롭게 오페라 작곡가로 편입된 작곡가들이 많고 세대별로도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폭넓은 양상을 보여주며 수적으로도 방대한 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특정 오페라단에 전속작곡가와 같은 형태로 활동하는 작곡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공연 장소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한국오페라 초연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에는 서울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오페라 공연이 더 많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오페라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더불어 한국오페라의 양적·질적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

고 있다.

공연을 주최한 오페라단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공공기관인 국립오페라단이 한국오페라 공연을 주도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한국오페라 초연 횟수 면에서 오히려 사립오페라단이 국립오페라단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오페라 초연을 주도하는 사립오페라단 중에서는 지방에 소재지를 둔 오페라단이 많다.

대본의 출처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문학보다 연극에서 대본의 출처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 2000년 이후에는 연극보다 문학 작품을 오페라 대본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 소재 면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고전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2000년 이후에는 인물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고전물의 경우보다 많다. 또한 현실적 이슈나 일상을 다룬 작품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소재의 확대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편, 한국오페라의 양적 증가의 원인으로는 첫째, 오페라 축제에서 주요 레퍼토리로 한국오페라를 지속적으로 공연한 것, 둘째, 오페라 창작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공연 지원 사업에서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경합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셋째, 지자체 및 지방오페라단의 한국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 넷째, 오페라 창작 기회 확대를 통한 오페라 창작 인력의 육성 등도 한국오페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오페라의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초연된 한국오페라 작품이 개작과 재공연과 거쳐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이 아쉽다. 즉, 한국오페라의 창작과 초연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재공연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그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저작권 및 공연권의 문제로 창작자들이나

주최 오페라단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워 오히려 한국오페라 공연이 제약을 가지게 되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오페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란다.²⁵⁾

25) 현재 충남대학교 한국예술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내에 '한국오페라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한국오페라 관련 자료(스코어, 팸플릿, 영상자료 등)를 1차자료 및 전자자료 형태로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예정(2023년 완료 예정)이다. '한국오페라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국오페라 관련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만. “판소리의 국가 문화브랜드화 전략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3 (2009), 5-26.
- 김정희. “한국창작오페라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6.
- 박갑선. “음악지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 오페라 단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 박지향. “오페라 공연 선호에 있어서 구성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2014.
- 손수연. “한국창작오페라 소재의 특징 분석과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5 (2015), 45-70.
- _____. “한국과 일본의 오페라 수용과 발전과정에 대한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2017), 149-159.
- 이영숙. “한국창작오페라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15.
- 전정임. “해방공간의 음악계.”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I』. 서울: 시공사, 1999, 281-320.
- _____. “1950년대의 음악계.”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II』. 서울: 시공사, 2000, 247-288.
- _____. “한국창작오페라사 시기 구분을 위한 소고.” 『예술문화연구』 18 (2011), 23-33.
- _____. “국가브랜드 오페라 프로젝트의 첫 수확 《아랑》.” 『예술문화연구』 25 (2018), 5-18.
- 한국오페라 50주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편. 『한국 오페라 50년사 1948~1998』. 서울: 세종출판사, 1998.
- 한국오페라70년사 발간위원회 편. 『한국오페라70년사 1948~2017』. 서울: 리음북스, 2018.

- 신성아. “연극이 오페라로…세종 카메라타 리딩공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274663&memberNo=35797485&vType=VERTICAL>. 『시장경제신문』. 2017. 6. 23. 검색일: 2020. 10. 8.
- 이주현. “한유한·정율성이 만난 오페라 《바람과 구름이 되어》.”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46549.html>. 『한겨레』. 2018. 5. 28. 검색일: 2020. 10. 15.
- 장지영. “세종 카메라타, 한국오페라 새 지평 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6162&code=13110000&cp=nv>. 『국민일보』. 2016. 2. 15. 검색일: 2020. 9. 25.
- “[문학/수기] 제3회 국립오페라단 맘(MOM)창작 공모전.” <https://blog.naver.com/thinkcontest/110102150079>. 검색일: 2020. 9. 29.
- “(사)호남오페라단 홈페이지.” http://www.호남오페라단.한국/index.php?pgurl=etc/sub_101. 검색일: 2020. 10. 5.
- “제2회 국립오페라단 맘(MOM)창작 공모전 공고.” <https://blog.naver.com/djart21/50083903137>. 검색일: 2020. 9. 29.
- “제2회 국립오페라단 맘(MOM)창작 공모전.” <https://blog.naver.com/junilim21/30087983932>. 검색일: 2020. 9. 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창작산실)한국오페라발굴지원.” https://www.arko.or.kr/content/popup/2020/pup_2020_7-1.jsp. 검색일: 2020. 9. 3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실명제 사업내역서_공연예술창작산실.” <https://www.arko.or.kr/board/view/789?bid=665&cid=1603403>. 검색일: 2020. 9. 3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0. 10. 9.

Abstract

Study of Korea Operas' Current State and
Transformation Process after 2000:
Focusing on Premiere Work

Chungim Chun

Since 2000, the number of creation and performances of Korea operas has increased dramatically. From 1950 - when The first korea opera Hyun Je Myung's *Chunhyangjeon* was premiered - to 1999, for 50 years, a total of 44 korean operas were premiered, whereas after 2000, 55 pieces (from 2000~2009), in the 2010s (2010~2019) 91 pieces, a total of 146 korea operas were premiered.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dramatic invigoration in the korea opera field after 2000. Based on this research, the thesis focuses in understanding what the power to maintain the development of korea opera is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opera and globalization

When comparing the aspect of premieres in korea operas before and after 2000s, first, in terms of composers, before 2000, opera composers were made up of older generation composers and the number of composers was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after 2000, there is a wide range of composers from the younger generation to older generation and shows a vas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osers. Second, in terms of performance venues, before 2000, premiere of korea operas were mainly centered in Seoul but after 2000, many performances were held in regions other than Seoul. Third, in terms of opera companies hosting the premiere, before 2000, the Korea National Opera - a public institution - led the performances of korea operas but after 2000, private opera

companies are leading the performances. Fourth, in terms of sources of script, before 2000, among other genres, script writers converted theoretical plays into opera scripts and traditional works made up a huge percentage of the subject matter. After 2000, in many cases, writers converted literature into opera scripts. Furthermore, the subject matter has been expanding. For instance, Many scripts focus on individual figures, and the number of pieces that deal with real issues and everyday life have increased.

Meanwhile, the causes of invigoration in Korea operas after 2000 include the inclusion of opera festivals in Korea opera performances, changes in the paradigm of performing arts creation support projects, expansion of interest in Korea operas from local governments and local opera companies, fostering of professionals in opera etc.

Key Words: Korea Opera, Korea Opera Composers, Korea Opera Script Writers, Opera Festival, Performing Arts Creation Support Project, Sejong Camerata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4일	2020년 10월 17일~11월 29일	2020년 12월 1일

DOI 10.34303/mscol.2020.28.2.001